

제시문(라)의 관점에서 보면 동물실험을 긍정적부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도표 1)은 인간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죽음이 인간이 실험용으로 죽인 동물보다 현저하게 많음을 볼 수 있다.

1. 식용으로 죽은 동물의 수치가 매우 높는데, 제시문의 내용과 어긋납니다.

또한,(도표 2)에서 인간의 행동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원리로 살아가는 동물은 거의 실험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즉,비인간적은 요소가 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도표 3)을 통해 인간치료법에 큰 이익을 준다는 것을 볼 수 있다.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인간의 동물실험은 충분히 이익을 주면서 비인간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옹호한다.

2. 왜 비인간적인 요소가 크지 않은지에 대한 설명이 불분명합니다. 논리적 비약입니다.

그러나,(나)의 입장에서 볼 때 도표들은 단지 인간의 폭력성과 종 차별에 정당성을 부여할 뿐이라고 주장한다.(도표 2)와 같이 인간과 유사함에 따라 종을 분류하여 서열시키는 부분에서 종 차별주의를 전제한 것을 볼 수 있다.또한,실험을 한다는 것 자체에서 인간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동물들은 인간보다 열등하기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도 보인다.따라서,제시문(나)는 (라)가 인간의 종 차별주의를 정당화하려는 자료로 사용할 뿐이라고 할 수 있다.

3. 전반적으로 표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시문 (나)를 연결지으려 하기에 근거적인 부분에서 부족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표들이 인간에게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표현 자체는 발문에 대한 제대로된 이해가 부족한 서술이라고 보여지며. 문단의 주장(결론) 자체부터 핑트가 어긋나서 서술되고 있어 전반적인 리라이팅이 필요해 보입니다.

4. 또한 제시문 (다)의 입장으로 분석하는 내용이 빠져 발문 불이행입니다.